

【 한국사 】

1.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 『한서』

- ①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 ② 사람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 ③ 형벌과 노비가 존재한 계급사회였다.
- ④ 상·대부·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2.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백제 왕이 가량(加良)과 함께 와서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 신주의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교전하였는데, 비장인 삼년산군 고간(高干) 도도(都刀)가 재빨리 공격하여 백제 왕을 죽였다. 이때 신라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 싸워 대승하여 좌평 4명, 병졸 29,600명을 베어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 『삼국사기』

(가)	(나)	(다)	(라)
나·제 동맹 체결	웅진 천도	사비 천도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3.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공왕 이후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진 이 시기에는 집사부 시중보다 상대등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인 혼란이 거듭되었다. 또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김헌창의 난 등이 발생하였다.

- ① 우산국을 정벌하는 장군
- ② 『계원필경』을 저술하는 6두품
- ③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는 군인
- ④ 노비안검법 시행을 환영하는 농민

4.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넓이는 2,000리이고, 주·현의 숙소나 역은 없으나 곳곳에 마을이 있는데, 대다수가 말갈의 마을이다. 백성은 말갈인이 많고 원주민은 적다. 모두 원주민을 마을의 우두머리로 삼는데, 큰 마을은 도독이라 하고 그다음 마을은 자사라 한다. 백성들은 마을의 우두머리를 수령이라고 부른다.

- 『유취국사』

- ①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정비하였다.
- ②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 ③ 수도는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하였다.
- ④ 중앙에서 지방을 견제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5.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날짜를 정하여 기일 내에 돌아가게 하였으나 (가) 은/는 다른 마음이 있어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가) 은/는 난을 일으키고 나라를 지키려는 자는 모이라고 하였다.

- ① 근거지를 옮기며 몽골에 저항하였다.
- ②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③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었다.
- ④ 포수, 사수, 살수 등 삼수병으로 조직되었다.

6.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승과 합격
- 승려 10여 명과 신앙 결사를 약속
- 결사문 완성
- 신앙 결사 운동 전개
- 돈오점수·정혜쌍수 강조

- ① 『천태사교의』를 저술하였다.
- ② 조계산에서 수선사를 개창하였다.
- ③ 속장경의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④ 참회수행과 염불을 통한 백련결사를 주장하였다.

7. 밑줄 친 ‘이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왕이 원의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하여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었고,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 ① 만권당을 설치하였다.
- ②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
- ③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 ④ 입성책동 사건이 일어났다.

8.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삼(紫衫) 이상은 18품으로 나눈다. …… 문반 단삼(丹衫) 이상은 10품으로 나눈다. …… 비삼(緋衫) 이상은 8품으로 나눈다. …… 녹삼(綠衫) 이상은 10품으로 나눈다. …… 이하 잡직 관리들에게도 각각 인품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나누어 주었다.

- 『고려사』

- ①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분급하였다.
- ② 관료들의 수조지는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 ③ 관(官)에서 수조지의 조세를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 ④ 인품과 행동의 선악, 공로의 대소를 고려하여 토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9. (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봉당 사이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왕권이 불안해지자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였다. 또한 봉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신문고를 부활시키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 ① 비변사를 철폐하였다.
- ②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 ③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④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10. 다음 건축물과 관련 있는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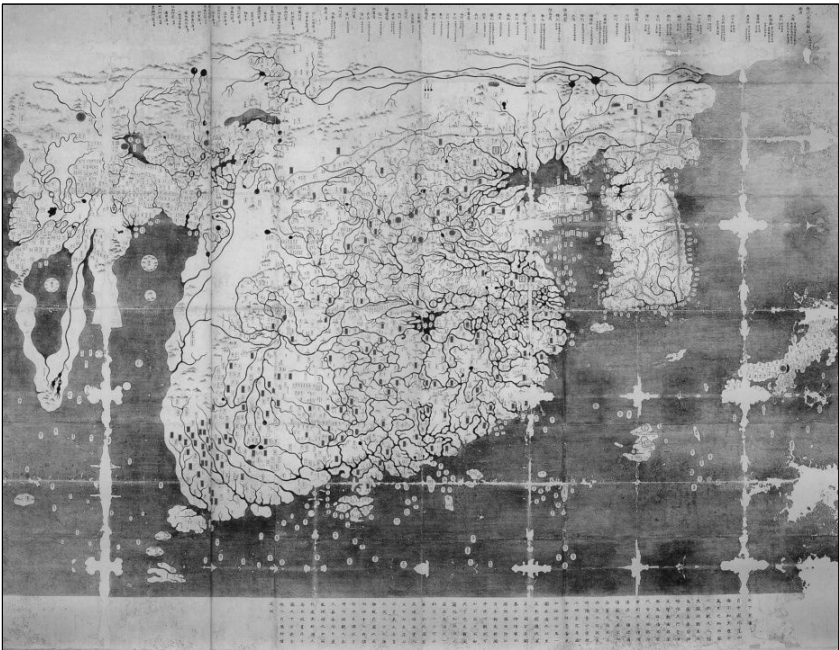
<오죽헌>



<자운서원>

- ① 『주자서절요』를 저술하였다.
- ② 양명학을 수용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③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여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 ④ 이(理)는 두루 통하고 기(氣)는 국한된다고 하였다.

11. 다음의 지도가 편찬된 당시에 재위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지도는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원나라의 세계 지도를 참고하고 여기에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한 것이다. 현재 원본은 전하지 않으며 후대에 그린 모사본이 일본에 전한다.

- ①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 ②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 ③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 ④ 진관 체제를 도입하였다.

12. 밑줄 친 발언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공회 석상에서 음성을 높여 여러 대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千里)를 끌어다 지척(咫尺)을 삼켰으며 태산(泰山)을 깎아 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 공들은 어떠시오?”라고 하였다. …… 대저 천리 지척이라 함은 종친을 높인다는 뜻이요, 남대문 3층이라 함은 남인을 천거하겠다는 뜻이요, 태산 평지라 함은 노론을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매천야록』

- ① 평시서를 설치하였다.
- ②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 ③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 ④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13. 다음 자료가 발표되기 이전에 나타난 정책으로 옳은 것은?

○ 청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하여 서로 뒤섞이는 것을 금한다.
○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 ① 대한국국제를 발표하였다.
- ② 태양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 ③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 ④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14. 다음을 선언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금일 오인(吾人)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逸走)지 말라.
○ 최후의 한사람까지, 최후의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 ①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 ② 신간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 ④ 원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이끈 운동이었다.

15. 다음 글을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개 국교·국학·국어·국문·국사는 혼(魂)에 속하는 것이요, 전곡·군대·성지·함선·기계 등은 백(魄)에 속하는 것으로 혼의 됄됨은 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오호라! 한국의 백은 이미 죽었으나 소위 혼은 남아 있는 것인가?

- ① 유교구신론을 발표하여 유교 개혁을 주장하였다.
- ② 조선심을 강조하며 역사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③ 의열단의 기본 정신이 나타난 조선혁명선언을 저술하였다.
- ④ 민족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찾으려는 조선학 운동에 참여하였다.

16. (가)~(라)의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
(나)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하였다.
(다) 한국독립군이 한·중연합 작전으로 쌍성포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라) 임시 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나) → (가) → (다) → (라)
- ④ (나) → (다) → (가) → (라)

17. (가), (나) 자료에 나타난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하여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 베듯이 베어 버리니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나) 군사장 허위는 미리 군비를 신속히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함에 한 방울의 물도 셀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전군에 전령하여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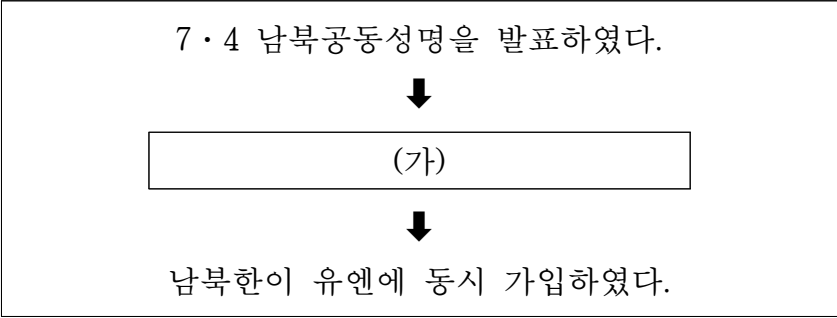
- ①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 ②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었다.
- ③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 ④ 헤이그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18. (가)~(라)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라)
조선건국준비 위원회 결성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5·10 총선거 실시	

- ① (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 ② (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③ (다):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제안하여 평양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④ (라):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19.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 ②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다.
- ④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7·7선언)이 발표되었다.

20.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 아군은 38선 이북에서 대대적인 철수를 계획하였다.
- 아군과 피난민들이 홍남부두에서 모든 선박을 동원하여 해상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가)	(나)	(다)	(라)
북한군 남침 시작	인천상륙작전 개시	평양 탈환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